

화 있을진저

소속	부산외국어대학교
이름	김민호

제목 화 있을진저

기획 의도 열등감은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자라나, 나를 장악해 버린다. 그 때부터 나는 ‘화’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. 그래도 이건 내 영화야. 건들지 마.

로그 라인 학창 시절부터 영화 감독을 꿈꾸며 함께 해 온 친구, 천재 감독이다. 그 녀석이 내 촬영장에 왔다. 내 심기를 조금씩 건들기 시작한다.

등장인물

준우 (남자 / 25세 / 대학교 4학년)

동원과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영화 감독을 꿈꾸며 같이 영화과로 진학했다. 자기와 비슷한 수준이라 여겼던 동원이 상을 받게 되고, 준우는 동원에게 점점 열등감을 느끼고, 조급해진다.

동원 (남자 / 25세 / 대학교 4학년)

준우와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영화 감독을 꿈꾸며 같이 영화과로 진학했다. 자신이 연출했던 작품이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, 학교에서 ‘천재 감독 신동원’ 이라고 불린다.

줄거리

준우가 연출하는 영화 <말문이 막혔네> 촬영 현장. 동원이 응원 차, 촬영장에 잠시 놀러 온다. 테이크가 길어지고, 스케줄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어 처져 있던 촬영장 분위기는 동원의 등장으로 조금이나마 밝아진다. 하지만 준우는 동원을 보고 열등감에 더 조급해지고 예민해진다. 거기에 동원이 조금씩 준우의 연출에 간섭하기 시작하고, 자신감이 떨어져 있던 준우는 점점 동원의 말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다.

점점 자신의 영화가 아닌 동원의 영화가 되어가는 <말문이 막혔네>. 결국 동원은 준우가 꼭 촬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빼자고 제안하고, 지칠 대로 지친 스태프들은 동원의 말을 듣는 게 어땠겠냐며 동조한다. 준우는 결국 폭발하고 만다.